

科學精神의 生活化

(下) 延世大學校 金亨錫 鈞壽

5. 최근 우리는 과학정신의 생활화는 오히려 사회과학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과학은 기계 및 기술과 연결되어 우리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었으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과학이다.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종교나 도덕이 우리들의 정신 생활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발전하면서는 종교나 윤리를 가지고서는 우리 사회가 이끌어지기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느끼며 인정지게 되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콩트의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옛날에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 왔으나 그 시대가 지난 뒤에는 철학이 우리들의 정신계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실증 과학을 바탕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었다. 그가 바로 근대 사회과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옛날로 올라갈 수록 우리들의 정신 생활은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사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신적 영향력은 어디까지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개인들이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와 도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치를 비롯한 사회 집단이 역사의 중심무대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적 결과로 나타난 프랑스혁명과 영국을 비롯한 산업혁명이 그 때로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밟

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는 두 가지 큰 역사적 변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 생활의 사회화와 과학화인 것이다. 개인보다도 사회가 문제시되며 종교나 윤리보다도 과학정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탄생된 것이 다름 아닌 사회과학인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흐름의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이 18세기 전반기에 탄생된 사회과학들이다. 프랑스에서는 A 콩트가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을 제창했다. 독일에서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탄생시켰다. 영국은 일찍부터 성장해 오던 공리주의를 J S 밀같은 학자에 의해 완성단계까지 이끌어 올렸다.

우리는 이들의 정신적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의 유 유럽사상은 이러한 사회 사상의 선도자들로 부터 계승되어 오고 있다. 실증정신이 얼마나 강하게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세력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와 실용주의 정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영국의 공리주의자들로 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도 경시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를 영도해가고 있는 모든 정신적 추류가 전세기에 창안된 사회과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학의 근본정신을 사회과학에서 논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구적인 현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개인이 자신들의 정신과 사상만 가

치고 사는 때가 지났으며 옛날과 같이 종교나 윤리가 우리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이념을 담당해 줄 수는 없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공통된 방향과 가치관이 정신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온 것이다.

만일 실학의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사회에 알맞는 어떤 사회이념과 과학정신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뚜렷한 사회과학의 내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공통된 가치체제를 잃고 있다는 뜻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대의 정신적 유산과 문화를 창조해가는데도 큰 난관을 겪게 된다.

우리는 서구사회로부터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계몽주의와 로망주의, 실증주의, 공리주의, 실증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등의 얘기를 들었고 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도 그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도 그들의 정치적 생활방식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을 때 뚜렷하게 얘기할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 사람의 착상과 연구가 그대로 우리 것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며 외국인들이 지내온 것 같은 무슨주의를 찾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적 생활의 통일된 이념이며 민족적 사고의 특수성이다. 언제까지나 유교를 얘기하며 전태되고 있는 종교를 논하면서 살수는 없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에는 대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격은 넓은 의미의 과학성을 띄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정신적 생활에도 뿌리가 있어야 한다. 마치 영국에서는 공리주의가 오늘의 영국을 만들었고 미국은 실용주의 정신을 갖고 현재의 아메리카를 이끌어 왔듯이 그러한 노력과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마련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인위적인 것도 금물이나 또 두어두면 된다는식의 사고방식도 위험하다. 언제나 실을 추구하며 사회의 공통된 이념과 가

치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지 않으면서 산다면 사회 과학의 탄생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풍습과 사조를 따르게 되며 그 결과는 민족적 특수성과 사회적 주체성을 상실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뿐이다.

6. 그러면 한 사회가 사회과학을 찾아 지니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물론 어떤 정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가지 과정에서 사회 이념과 통일된 가치관이 탄생되었던 것 같다. 그 하나는 정신적 지도자들이 나타나 그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이다. 옛날같으면 종교계의 지도자가 신앙을 통해 그 사회인들을 이끌어 갔고 존경받는 도덕과 윤리적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정신적 방향을 선도해 갔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대표적인 지성인들, 예를 들면 학자나 사상가들이 그 임무를 담당해 왔다. 메칼트, 스피그짜, 라입넛쯔, 같은 이들의 대륙의 합리정신을 주도해 갔고 베이콘, 홉스북, 휴움 같은 학자들이 영국의 경험주의를 국민의 것으로 개발해 주었다. 그 뒤에도 벤담, 제임스 밀 J. S 밀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나 공리주의 전통을 만들었다.

그러나 따져보면 거기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어떤 사회 이념과 사회 과학적 정신이 주어진다 것은 그 당시의 국민들 전체가 같은 방향과 뜻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쾌서한 사회적 사고와 정신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인 것이다. 말하자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의식 구조와 사고 방식이 표면화되며 국민의식이 어떤 정신적 지도자에 의하여 밝혀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이념과 사고는 밀로부터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고 소수로부터 대중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태도는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거나 상반되는 처지는 아니다. 정신과 문화적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지도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

회에서는 대중의 요청이 그대로 사회정신과 과학성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사회 이념과 삶이 과학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함이다. 많은 사람들은 서구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그들의 사회과학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사회로부터 배워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가 합리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여 과학문명을 얻어 누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 하나의 실제성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론과학이나 자연과학은 세계에 공통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 위에서는 모든 사람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그 사회와 민족의 특수성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로부터 직수입할 수도 없으며 개인이 남의 생각을 가지고 살수 없듯이 한 사회는 그대로 다른 사회의 말과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서는 안된다.

실제에 있어 경험주의를 택하고 있는 영미계통사회와 합리주의를 계승해 오는 독불계통 사회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경험주의자들은 현실을 중심으로 사고 하기 때문에 보다 좋은 현실을 위해 이념을 찾아가는 길을 택하나 합리주의자들은 이념을 먼저 개발한 뒤에 그 이념의 방향으로 현실을 맞추어가는 태도가 많다. 프랑스 같은 나라가 혁명을 자주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 사회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회 이념을 만드는 일도 있어야 하나 반면에 어떤 이념이 주어짐으로써 그 사회가 새로운 방향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 이념을 동반하는 사회 과학은 절대적인 것일 수도 없으나 어떤 고정된 내용일 수도 없다. 그 사회로부터 나와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어떤 가치관이면서도 언제나 새롭고 발전적인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이미도 말한 바 있으나 옛날에는 그것이 종교일 수 있었고 윤리적 교훈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어떤 과학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회 과학은 반드시 어떤 이데올로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요한 것

은 과학적 정신이며 방법을 동반한 사회 이상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회과학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또 어떤 사회 과학적 정신에 빠져들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우리들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으며 그 공통된 뜻을 어떻게 과학적인 방향과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함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우리들 생활에서 계승되는 것이면서도 미래의 생활을 값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 실예를 중단되기는 했으나 실학정신에서 찾아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7.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적 사회과학을 수립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객관적 가치의 추구라는 점입을 강조하고 싶다. 이론과학이나 자연과학이라면 논리적 사고와 사물의 구체적인 법칙을 찾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생활전반에 있어 어떻게 객관적 가치를 찾아 따르는가 함에 모든 생각을 묶어야 한다. 사실 합리주의는 그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이며 연역적인 방법에서 얻으려고 했으며 경험주의는 그 원칙을 경험에 입각한 귀납적 방법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의 삶과 가치 설정에 있어 무엇이 객관적 가치를 찾게 해주는가 함에 있었다. 객관적 가치란 우리들의 사고는 물론 모든 판단과 실천성을 동반하는 방향과 표준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그 하나는 보다 넓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것도 나의 소유 내육체 그리고 나를 위한 생각과 생활을 먼저 하려는 본능성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가치의 추구란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

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의 정신적 내용을 우리는 객관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 한정당이 있다고 하자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민족과 국가에 크게 이바지 할 길이 없으므로 정당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당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치 사회에서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면 정당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나보다는 내 정당을 위하고 정당보다는 내 국가를 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는 국가보다는 정당을 정당보다는 나의 위치를 생각하는 경향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후진사회의 대부분의 정당인들이 후자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사회 국민들은 그런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정당인들을 결코 지도자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객관적 가치의 추구를 생활화시키고 있는가 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넓은 사회를 위해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사회 과학을 탄생시킨 추진력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공리주의자들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의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을 하며 행정을 한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넓은 사회에의 길이며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도인 것이다.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방도는 미래를 위해 생각하며 선택하며 행동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동양을 회고(懷古)적인 사회라고 부른다. 유교 정신이 보수적이며 권위를 존중하며 인간을 종적관계로 취급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과거가 귀하며 옛날 것을 모방해야 하며 이대로그가 좋다는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장점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과거를 위한 현재와 미래가 된다면 그 폐단과 불행은 씻을 길이 없어진다.

우리들의 의식구조와 사고 방식속에는 아직도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우선 원수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금수와 같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모든 원수를 서로가 갚은 뒤에야 미로 전진하며 은혜를 갚기 전에는 새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회는 파괴되며 파멸을 만들며 살자는 결과 밖에는 남지 못한다. 바로 그 정신이 우리를 파멸시켰던 것이다.

원수를 갚기 위해 서로 죽이고 은혜를 갚기 위해 끼리끼리 문쳐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갚는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과거 중심의 생각이다. 우리는 바르게 미래를 선택하며 앞으로 있을 더 좋은 것을 찾아 전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미래를 위한 생활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는가고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찾는 일이며 전체와 대아(大我)를 위해 있어야 할 바를 추구하는 결과가 된다. 미래지향적인 가치 추구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오늘의 나를 떠나 있어야 할 우리의 것을 찾는 일이며 현재의 자아를 벗어나 미래의 사회를 생각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뜻들이 이루어져 보다 넓은 사회와 보다 먼 미래를 위해 우리들의 생각을 모으며 선택과 판단을 묶으며 행동의 방향을 전진시켜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나름대로의 사회, 생활의 방향과 내용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을 위한 사회과학을 개척하는 기본적 자세인 것이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 사회보다는 우리와 나를 생각하며 미래보다도 현재와 과거를 위해 살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조선말기의 패망의 풍토를 그대로 연출하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어진다. 그것을 희망적인 사회 이념과 과학정신이 없는 사회로 규정짓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사회 이념이다. 그 뜻을 객관적 가치에서 추구해 보는 것이 사회과학의 출발인 것이다.

8.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적 방향을 살리며 개척해가는 방도와 절차는 어떤 것인가 과학정신의 생활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우느리 그 내용을 두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프라그마티즘 즉 실용주의 정신이다. 어떤 사람은 실용주의를(열매 많은 것 그것이 곧 진리이다)는 말로 표현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사회과학의 한 대포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실용 정신은 어디까지나 실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이었다.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결과를 얻더라도 그것은 현실적 실제성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우리 나라 조선조 초기에 주자학과 같은 관념철학이 아니라 현실사회를 위한 실제적 학문이 들어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아메리카는 실용주의를 제창하면서 모든 추상적이며 실제성이 없는 사상과 정신은 멀리했다. 그것들은 경험의 영역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철학에서 과학에의 과정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옛날에는 철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것들이 필요했으나 현대는 과학의 세기이므로 오히려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사회 과학적 방법의 중요한 방향을 만들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비현실적인 사고와 가치가 그대로 인정 받고 있으며 때로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현상까지도 남아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추상적인 것을 배격하거나 철학적인 과제들을 문제삼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현실과 실제를 무시하거나 배격하는 상태로 부터는 벗어나야 하며 모든 관념적인 것들은 현실과 실제성 위에서 재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다름 아닌 과학 정신인 것이다.

오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빠져 있는 모순도 거기에 있다. 그들은 극히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로 출발했다. 그러나 주의와 사상을 체계지어가는 동안에 현실 보다는 논리를 실제성보다는 변증법의 이론에 묶여 자신들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 본래부터 마르크스주의는 경험주의 전통에서 자란 사상이 아니라 독일적 철학의 전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과학정신이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한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정신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며 그 방향은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실제와 현실을 바탕삼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실제성이 전진하면 실리성으로 까지 확대된다. 우리 동양인은 그 실리성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유교적 전통의 인습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적 실리성은 견제를 받을 때가 있어도 정신적 실리성은 배척받을 수가 없다. 정신적 실리성은 언제나 객관적 가치와 통하기 때문이다. 바로 실용주의가 뜻하는 것이 정신적 열매로서의 실리성인 것이다. 구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이론보다는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과학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 과학 정신의 핵심인 것이다.

과학정신은 생활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도는 개선과 창조 정신의 발휘이다. 후진 사회의 불행은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지도층의 획일적 사고 방식과 국민 대중의 현재로써 족하다는 생각이다. 이 두가지는 모두가 개선과 창조성을 제약하는 사고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하며 개선하려는 의욕이 없이는 창조적인 정신이 탄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개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개선하여 하는 일이 언제나 세로워 질 수 있어야 하며 정신적인 지도층은 항상 새로운 생각과 이념을 갖추도록 진력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과학의 개발이 구체적인 사물의 개선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면에서 보다 새롭게 나가려는 진취력이 없다면 개선은 불가능해 지며 따라서 과학 정신의 생활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정신과 사상이 언제나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창조해 가는 일이다. 물론 그것은 소수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도록 되어 있다. 토인비가 창조적인 소수의 지도층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가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우리들의 사고를 개선하게 되며 그것은 마침내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바꾸어 갈 수도 있다. 얼마전 들었던 한 외국인의 말이 생각난다. 84평자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이다. 그는 「집이란 가장 편히 쉬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어야 할 것으로 안다」는 얘기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공연히 큰 집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집의 활용도에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우리들 자신의 생활과 질서에도 변화를 안겨 줄 수가 있다.

우리가 과학정신을 실제성과 개선의 입장에서 취급하며 그에 따르는 창의성과 창조정신을 취급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9.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았고 그 정신을 생활화시키는 데는 어떤 자세와 방법이 필요한가를 탐구해 왔다. 그리고 비교적 중요시한 점이 있다면 과학의 기계주의적 비율을 낮추고 그 일반성과 사회 과학적 과제를 무게 있게 다룬 점이다. 문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속에 어떻게 과학정신이 작용할 수 있는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몇가지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과학이 마치 생활의 전부이며 그 목적인양 잘못 생각하는 일이다. 우리가 「전 국민의 과학화」라는 말이 어색하다고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수단이며 방편이다. 그 필수적인 방법과 수단을 너무 소홀히 여겨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비교적 강조한 것 뿐이다.

우리는 과학 이외에도 예술이 있고 철학이 있으며 종교가 있고 폭넓은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중에서 과학성의

결핍을 너무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며 또 과학을 지나치게 기계 과학이나 자연 과학에 국한시키고 있음으로 그 영역을 폭넓게 취급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 현대가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생활의 모든 분야를 과학적으로만 처리하자는 것도 우리의 요청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과학을 강조하는 나머지 휴머니즘의 대도(大道)를 어긋내고 있으며 한 때 성행했던 자연과학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밝힐 수 있는 것 같이 잘못 생각하여 역사와 문화를 지나친 유훈론으로 끌어갔던 세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결핍되어 있던 과학적 영역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정당하게 받아 들이며 그 과학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들의 문화와 생활의 풍부성을 더하게 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활 영역을 과학이 다 차지해 버리면 모든 것은 과학으로 환원되는 듯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영역은 과학 철학 예술 종교 도덕 등의 모든 분야에서 넓어져 가고 있다는 정당한 생각을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강조해 왔으나 과학은 언제나 합리적 방법성에 그 중요성이 있다. 만일 과학이 방법의 위치를 벗어나 내용과 목적의 영역까지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학을 초월하는 삶의 분야에서 새로운 이상과 목적을 다시 참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한가지 사실만 더 추가키로 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정신의 생활화는 어떻게 가능하며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함을 문제 삼는 동시에 어떻게 사고하는가 함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속에 과학적 정신을 살려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을 손끝에서 살려가려고 애썼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학의 정신을 머리로부터 인출하는 작업과 교육을 해야 한다. 그때 과학은 스스로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으며 현대인은 메카니즘의 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